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 예측 (Forecast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By Gallup Korea)

▶ 조사개요

- | | |
|---------------------------|-------------------------------------|
| 1. 조사대상 : 전국 투표자/투표의향자 | 5. 조사기간 : 2012년 12월 19일 |
| 2. 표본크기 : 2,000명 | 6. 표본오차 : $\pm 2.2\%$ 포인트(95% 신뢰수준) |
| 3. 표본프레임 : 휴대전화RDD+집전화RDD | 7. 응답률 : 48% |
| 4. 응답방식 : 전화조사원 인터뷰 | 8. 의뢰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 |

박근혜 50.2% 득표로 당선 예측

한국갤럽조사연구소(대표: 박무익 회장)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측 결과를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 이전에 발표했다.

한국갤럽의 대선 후보 예상 득표율은 ‘박근혜 50.2%: 문재인 49.4%: 기타 후보 0.4%’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앞섰다.

이는 한국갤럽이 선거 당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응답층을 재분류(판별분석)하고 투표율 75%를 적용해 산출한 예측치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기타 후보
한국갤럽 최종 예측치	50.2%	49.4%	강지원 후보 0.2% 김순자 후보 0.2%
실제 득표율	51.6%	48.0%	강지원 후보 0.2% 김순자 후보 0.2% 김소연 후보 0.1%
1-2위 예측 오차	-1.4%포인트	+1.4%포인트	

표본오차: $\pm 2.2\%$ 포인트(95% 신뢰수준)

◀ 한국갤럽 제18대 대통령 선거 예측 조사의 특징 ▶

한국갤럽은 1987년 국내 최초로 선거 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제13대, 제14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국갤럽 선거 예측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3사의 선거 당일 대규모 ‘출구조사’(Exit Poll)와 달리 ‘전화조사’만을 활용해 예측치를 낸 점이다.

특히, 한국갤럽은 2012년 1월부터 휴대전화RDD 표본프레임으로 독자적인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주 대선 후보 지지도,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그 외 여러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론과 일반인에 공개해 왔다. 연중 실시한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와 이번 선거 예측 결과는 관련 업계와 학계의 흥미로운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누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나?

한국갤럽의 선거 예측 조사 결과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투표 경향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 박근혜 후보는 여성, 문재인 후보는 남성 지지자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 이번 대선은 역대 선거 중 세대 대립 양상이 가장 뚜렷했다.
 박근혜 후보는 20/30대로부터 30% 내외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으나
 50대(64.1%)와 60세 이상(74.7%)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를 만회했다.
 문재인 후보는 30대에서 71.1%로 지지가 가장 높았고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 연령대인
 40대에서는 박 후보에 앞섰으나 50대 이상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직업별로 화이트칼라와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박근혜 지지자가 더 많았다.

원적별로 호남 원적자(아버지 고향 기준)는 문재인 지지 82.1%,
 대구/경북 원적자는 박근혜 지지 72.4%로 지역 대결 양상이 재현됐다.
 박근혜 후보는 호남과 서울 원적자를 제외한 모든 원적층에서 문 후보에 앞섰다.

◀ 한국갤럽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최종 예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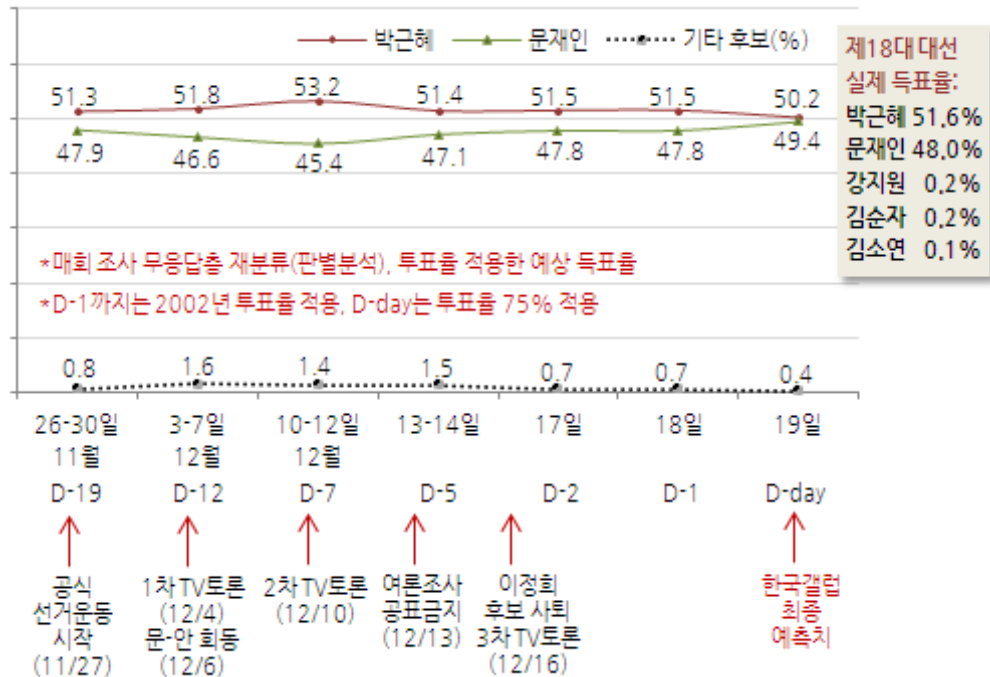
	사례수	박근혜	문재인	기타	계
		%	%	%	%
■ 전성년여성 ~ 29세	(2000)	50.2	49.4	0.4	100.0
■ 30대	(1002)	47.9	51.6	0.5	100.0
■ 40대	(998)	52.3	47.4	0.2	100.0
■ 50대	(289)	32.5	66.7	0.8	100.0
■ 60세 이상	(390)	28.3	71.1	0.7	100.0
■ 권역	(459)	43.4	56.4	0.2	100.0
■ 수도권	(428)	64.1	35.6	0.3	100.0
■ 호남	(433)	74.7	25.2	0.3	100.0
■ 충청	(412)	45.5	54.2	0.2	100.0
■ 전라	(570)	48.1	51.4	0.5	100.0
■ 경상	(62)	61.9	38.1	0.0	100.0
■ 대구	(203)	51.0	48.8	0.2	100.0
■ 경북	(205)	12.3	87.2	0.5	100.0
■ 부산	(207)	83.5	15.6	0.9	100.0
■ 울산	(317)	58.5	41.3	0.2	100.0
■ 광주	(23)	-	-	-	100.0
■ 전북	(63)	63.0	36.3	0.7	100.0
■ 전남	(299)	56.5	43.2	0.3	100.0
■ 제주	(191)	51.9	47.7	0.4	100.0
■ 서울	(593)	35.4	64.2	0.5	100.0
■ 인천	(512)	61.0	38.9	0.1	100.0
■ 경기	(150)	30.1	68.4	1.5	100.0
■ 강원	(192)	65.9	33.9	0.2	100.0
■ 충청	(118)	45.6	53.9	0.5	100.0
■ 전라	(173)	57.2	42.5	0.3	100.0
■ 경상	(100)	55.3	44.7	0.0	100.0
■ 대구	(345)	56.9	42.4	0.6	100.0
■ 경북	(457)	17.7	82.1	0.2	100.0
■ 부산	(333)	72.4	27.0	0.6	100.0
■ 울산	(310)	57.7	42.1	0.2	100.0
■ 광주	(28)	57.5	42.5	-	100.0
■ 전북	(135)	59.6	40.1	0.3	100.0
■ 전남	(804)	96.6	3.4	0.0	100.0
■ 제주	(734)	4.8	95.1	0.0	100.0
■ 서울	(419)	44.7	54.0	1.3	100.0
■ 인천					
■ 경기					
■ 강원					
■ 충청					
■ 전라					
■ 경상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선거기간 중 누가 가장 인기 있었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는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 선언과 이후 문재인·안철수 회동, 이정희 후보의 사퇴, 국정원 직원 비방댓글 의혹 등 여러 사건과 쟁점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흐름에서는 그러한 사건들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시작 이후 계속 1위를 유지하며 당선에 이르렀다.

◀ 대선 후보 예상 득표율 추이 ^{주)} ▶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무응답층 포함) (%)

	11월 26-30일	12월 3-7일	12월 10-12일	12월 13-14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박근혜	45.1	46.3	47.0	45.9	46.4	46.7	43.9
문재인	42.6	41.6	41.6	43.1	44.5	44.6	45.4
기타	0.9	1.6	1.4	1.5	0.8	0.7	0.4
모름/무응답	11.6	10.5	10.0	9.4	8.4	7.9	10.3

주) 위 그래프에 제시한 예상 득표율은 기존 언론 발표 시 포함된 '무응답층'이 실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재분류한 결과다. 지지 후보를 밝힌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무응답자가 어느 후보 지지 집단에 속할 것인지 예측하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방법을 활용했다.

한국갤럽은 홈페이지(www.gallup.co.kr)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12월 선거 당일까지의 무응답층이 포함된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를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원하는 분에 한해서는 매주 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각 예측 조사의 결과는 어떠했나?

한국갤럽(휴대전화RDD+집전화RDD 표본프레임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외에도 ‘방송3사’(출구조사-Exit Poll), ‘YTN’(사전 모집 응답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조사), ‘JTBC’(휴대전화RDD+집전화RDD 자동응답)와 ‘오마이뉴스’(휴대전화RDD 자동응답) 등의 언론이 제18대 대선 결과를 사전 예측했다.

각 예측 조사의 개요와 예측치는 다음과 같다.

◀ 18대 대통령 선거 예측 비교 ▶

조사회사 (의뢰기관)	표본프레임 응답방식 표본크기 표본오차(95%신뢰수준)	실제 득표율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후보 48.0%	기타 후보 0.5%
한국갤럽 (자체 조사)	휴대전화RDD+집전화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2,000명 ±2.2%포인트	50.2%	49.4%	0.4%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TNS (방송3사)	출구조사(Exit Poll) 무기명투표방식 (Ballot method) 86,000명 ±0.8%포인트	50.1%	48.9%	1.0%
한국리서치 (YTN)	사전 모집응답자 대상 휴대전화조사 5,000명 ±1.4%포인트	46.1~49.9% (48.0%)	49.7~53.5% (51.6%)	(0.4%)
리얼미터 (JTBC)	휴대전화RDD+집전화RDD 자동응답(ARS) 5,000명 ±1.4%포인트	49.6%	49.4%	1.0%
리서치뷰 (오마이뉴스)	휴대전화RDD 자동응답(ARS) 8,600명 ±1.1%포인트	48.0%	50.4%	0.6%

〈한국갤럽의 역대 대선 결과 예측과 적중〉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 13대 대선 이후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의 한국갤럽 선거 예측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섯 번의 대선 예측에서 당선자 기준 평균 오차는 1.8%포인트다.

• 13대 대선(1987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기타 후보
갤럽예측	35.3%	28.4%	27.5%	8.3%	0.5%
선거결과	36.6%	28.0%	27.1%	8.1%	0.2%
오차	1.3%포인트	0.4%포인트	0.4%포인트	0.2%포인트	0.3%포인트

• 14대 대선(1992년)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기타 후보
갤럽예측	39.5%	31.1%	15.7%	12.4%	1.2%
선거결과	42.0%	33.8%	16.3%	6.4%	1.5%
오차	2.5%포인트	2.7%포인트	0.6%포인트	6.0%포인트	1.3%포인트

• 15대 대선(1997년)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기타 후보
갤럽예측	39.9%	38.9%	19.7%	1.5%
선거결과	40.3%	38.7%	19.2%	1.8%
오차	0.4%포인트	0.2%포인트	0.5%포인트	0.3%포인트

• 16대 대선(2002년)

	노무현	이회창	권영길	기타 후보
갤럽예측	46.2%	48.5%	4.9%	0.3%
선거결과	48.9%	46.6%	3.9%	0.6%
오차	2.7%포인트	1.9%포인트	1.0%포인트	0.3%포인트

• 17대 대선(2007년)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	기타 후보
갤럽예측	51.3%	25.1%	13.5%	6.1%	4.0%
선거결과	48.7%	26.1%	15.1%	5.8%	4.3%
오차	2.6%포인트	1.0%포인트	1.6%포인트	0.3%포인트	0.3%포인트

• 18대 대선(2012년)

	박근혜	문재인	기타 후보
갤럽예측	50.2%	49.4%	0.4%
선거결과	51.6%	48.0%	0.5%
오차	1.4%포인트	1.4%포인트	-

[문의] 한국갤럽 연구3본부 (02-3702-2621)